



## 아이와 함께 영어로 말하기

### 아이를 돕기 위해 영어로 말하기

대부분의 경우 아기가 모국어를 말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부모입니다. 두 살이 될 때까지 아기에게 언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르치는 것은 대개 엄마의 목소리, 특히 '부모어투 (parentese)'라고 불리는 특별한 방식의 말하기를 통해서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영어 능력을 갖추었을 뿐인 부모라도 이러한 부모어투 사용 기법을 그대로 재사용하거나 부분적으로 변용함으로써 아이들의 영어 학습을 크게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어 액센트를 걱정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아이들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 맞도록 액센트를 바꾸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I can speak English (나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I like English (나는 영어가 좋다)' 라고 느낄 필요가 있으며, 아이들이 처음으로 영어를 배울 때 이런 느낌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 부모의 도움이 최고인 이유

- 부모는 자기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으며, 1대1로 보내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부모는 자신과 아이의 일상 생활에서 가장 잘 맞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영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부모는 자기 아이의 필요와 흥미와 집중력에 가장 잘 맞는 만큼의 영어 시간과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모는 자기 아이를 가장 잘 알며, 따라서 자기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독특한 방식에 적합한 영어 말하기 유형을 본능적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 부모는 아이의 기분을 가장 잘 읽어내며 그에 따라 적절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언어를 열심히 흡수하는 날이 있는 반면, 집중하기 힘들어 하는 날도 있는 것입니다.
- 여러 명으로 구성된 학급이 아니라 아이 한 명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모는 영어 시간을 더욱 재미있게 꾸밀 수 있습니다.
- 부모는 영어권의 문화를 가족 생활에 도입함으로써 아이의 세계관을 확장해줄 수 있고 영어권 문화뿐 아니라 자기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 부모어투 (parentese) 란 무엇인가

'부모어투'란 어린 아이의 언어 수준에 맞도록 변형된 말하기 형태로서, 아이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동시에 그들의 언어 능력 수준의 발달을 인도합니다. 여성은 부모어투 사용에 타고난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일부 남성은 그림책이나 게임 등과 같이 구체적인 대상을 둘러싼 대화가 아닌 경우 부모어투 사용을 어려워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아이들, 특히 남아들은 역할 모델이 되어 줄 남성도 필요로 합니다. 남성의 언어 사용 패턴이 여성과 다르기 때문이지요. 남성의 언어 사용은 좀더 실제적인 성격을 보이면서 말수도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와의 영어 활동에 임할 때 좀더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와 단순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부모가 무의식적으로 아이의 언어 습득을 돕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계속 설명하기 : ‘Let’s put it here.’ ‘There.’ ‘Look. I’ve put it on the table.’ ‘Which one do you like?’ [기다림] ‘Oh, I like this one.’ ‘The red one’
- 유용한 언어를 어른과 대화할 때보다 더 많이 반복하기 : 자연스런 반복은 아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해 줍니다. 비록 부모에게는 지루할지라도 아이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 아이가 말한 것을 되짚어 보면서 그것을 확장해 주기 : 아이 : ‘Yellow’ 부모 : ‘You like the yellow one.’ ‘Here it is.’ ‘Here’s the yellow one.’ ‘Let’s see. Yellow, red and here’s the brown one.’ ‘I like the brown one, do you?’ [기다림]
- 언어의 멜로디를 바꾸지 않은 채 좀더 천천히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새 단어를 강조해서 말하기 : ‘Which **rhyme** shall we say today?’ ‘**You** choose.’ [아이가 선택하도록 기다림]
- 영어 시간은 물론 활동과 게임을 하는 동안에도 똑같은 표현을 계속 사용하기: 아이의 이해가 커지는 것에 맞추어 이러한 기본적인 표현들도 확대합니다. ‘Let’s play Simon says.’ ‘Stand there.’ ‘In front of me.’ ‘That’s right.’ ‘Are you ready?’
- 이해를 돕기 위해 표정과 몸짓을 함께 사용하기
- 주저하는 아이가 말하도록 이끌어 주기 위하여 1대1 대화 상황에서는 아이와 눈을 맞추기
- 아이가 대답을 하기 전에 자신이 들은 것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도록 좀더 오래 기다려 주기. 말하는 것이 아직 부족한 단계에서는 좀더 오래 기다려 주는 것이 게임의 재미를 더하거나 흥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어투를 억지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어색해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모국어로 자연스럽게 배운 이러한 ‘작은 수업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부모어투를 통해 영어를 더욱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일단 말을 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단어나 활동을 시작할 때를 제외하고 부모어투를 사용할 필요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 영어 사용하기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끼면서도 다음 단계를 예측할 수 있는 게임이나 ‘운율 외우기 놀이 (rhyme times)’와 같은 활동을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간단한 영어를 충분히 반복해 사용하면 아이들은 영어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하여 영어로 말하고 싶어합니다.

- 자기 자신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 ‘I like; I don’t like … yuk’
- 자기가 한 일들 : ‘I went to …; I saw …; I ate …’
-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기분 : ‘I am sad; she’s cross …’

부모가 아이와 그림책을 함께 본다면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해 함께 책을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모국어를 배우는 아이들은 ‘이젠 없어.’와 같이 짧은 표현을 여러 상황에 두루 적용하는 습씨가 뛰어납니다. 어른이 이러한 방식을 영어 표현에도 적용한다면 아이들은 이것을 금방 모방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영어를 연습해야 할 필요가 생길 때는 ‘What’s your name?’ ‘How old are you?’ ‘What’s this?’ ‘That’s a pencil.’ 따위의 어구를 사용하십시오. 영어만 말하는 것으로 정해 놓은 인형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인형이 영어로 대답하도록 하는 식의 재미있는 놀이를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이의 말하기 능력이 신장되어 가면, 영어 문장으로 말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그것만 모국어로 대체하여 말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He’s eating a (…)’와 같은 식으로요. ‘He’s eating a **plum**’ ‘A **plum**.’과 같이 부모가 문장을 온전한 영어로 되풀이해 주면 아이는 새로운 단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 언제 번역해 주는가

아이들의 이해하는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해합니다. 아이들은 모국어 환경에서도 자기들이 들은 것의 일부만 이해하지만 상대방의 몸짓과 주변 단서들을 활용하여 의미를 추출하는 데 익숙합니다. 부모어투를 사용해 주면, 아이들은 이러한 기술을 영어의 의미를 추출하는 데도 적용하는 듯합니다.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언어가 동시에 주어질 때 그것의 번역어를 속삭이듯이 간단히 말해준 후 곧바로 영어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영어 시간에도 계속 번역어를 말해 준다면 아이는 스스로 영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단서를 찾으려 하지 않고 번역어가 주어지기를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 영어 시간

영어 시간은 하루에 한두 차례, 한 번에 몇 분에서 십 분까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어를 자주 사용할수록 흡수하는 속도도 빠릅니다.

영어 시간에는 부모가 다른 일에 신경을 분산하지 않고 아이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의 온전한 관심을 받는 특별한 시간으로서 영어 시간을 좋아하게 됩니다.

아이도 논리적인 사고를 합니다. 부모와 자기가 모국어를 할 줄 아는 데도 불구하고 영어로 말해야 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그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모국어에서 영어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은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3분 후부터 영어 시간 시작이다’와 같이 환경을 구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소파로 가서 영어로 말해 보자’와 같이 영어 시간을 갖는 특별한 공간을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영어로 숫자 세기나 잘 아는 운율을 말해보는 것 따위의 워밍업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연관된 활동을 하면서 말을 할 때 언어를 잘 배웁니다. 모국어를 사용하여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는 활동을 영어로 다시 한다면 아이들은 더 편안하게 영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집중력 지속 시간은 모국어 환경만큼 길지 않으므로 오직 영어로만 진행되는 영어 시간은 그만큼 짧아져야 합니다. 영어만을 듣는 것은 피로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 격려와 칭찬

아이들은 부모의 칭찬을 기다립니다. 아이가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자기의 영어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하여 자신감과 의욕을 잃지 않도록 엄마와 아빠는 물론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모두 격려와 칭찬과 긍정적 피드백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배움의 초기 단계에는 격려가 중요하며 아무리 작은 성공이라도 '잘했다' '좋은데' '멋지다' 등으로 칭찬해 주면 의욕이 커집니다.

영어를 막 배우기 시작한 때야말로 아이가 부모의 격려와 칭찬을 가장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일단 말을 하기 시작하고 운율을 외우고 몇 편의 이야기를 암송할 수 있게 된 아이에게는 그렇게 강한 격려와 칭찬은 불필요합니다. 이 단계쯤 되면, 영어 어구와 운율과 이야기가 가족 생활의 재미있는 일부로 편입되었을 것입니다. 생활의 일부가 된 영어는 가족 간의 결속감을 높여줄 뿐 아니라 쉽게 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는 영어권 및 다른 문화권에 대하여 평생 지속될 긍정적인 태도의 시작입니다. 평생 동안 유지되는 대부분의 태도는 8-9 세 이전의 어린 시기에 형성된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Read this article online <http://learnenglishkids.britishcouncil.org/en/parents/articles/speaking-english-home>

Contributed by Opal Dunn, educational consultant and author